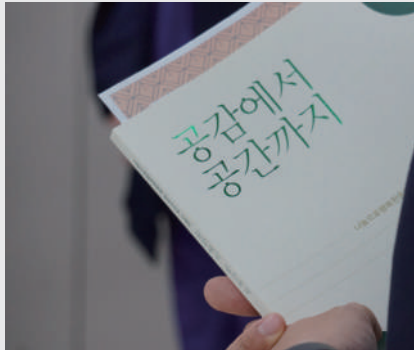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14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06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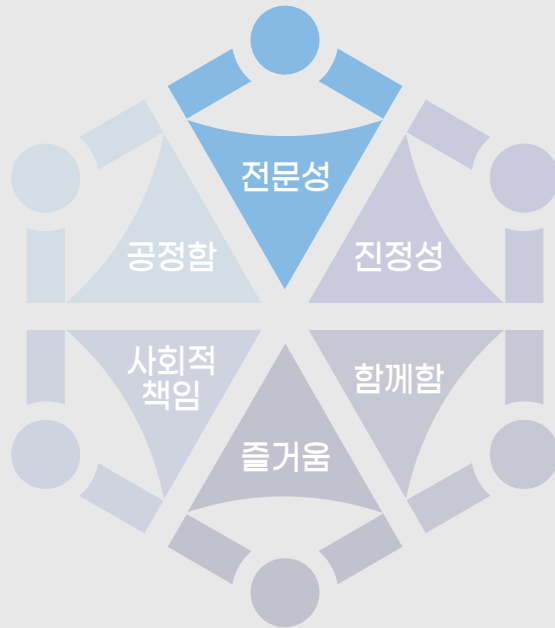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발주 의료기기개발 연구 수행

김연희 명예원장님 제4세부 연구책임자로 참여

연구제목: 인공지능 기반 개인맞춤 최적재활 멀티모달 뇌신경자극
치료기기 개발

연구팀 구성: 주관연구개발 기관 사이버메딕
참여기관: 고려대, 성균관대, 전북대
정부지원금 37억 5천만원 총 4년간 연구 시행 현재 2차년도

김연희 명예원장님께서 제4세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환자 개인 맞춤 최적재활 프로토콜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목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개인 맞춤 최적 재활을 위한 멀티모달
뇌신경자극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함입니다.

주관기관은 멀티모달 뇌신경자극 치료기기 통합 시제품 개발, 각 세부
기관은 재활치료 시 뇌전기자극을 병행하고 뇌의 활성상태를
근적외선분광분석기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피드백을 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제공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으로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추후 2년에 걸쳐 식약처
허가임상시험을 시행한 후 실용화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의료기기는 뇌졸중 환자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재활치료를 시행하면서
뇌직류자극과 기능적전기자극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환자별 맞춤형
과제를 인공지능기법으로 제공하고 적외선분광기를 사용하여
뇌활성상태를 실시간 분석하여 피드백하는 최첨단 재활의료기기이며,
뇌질환환자들의 상지기능 증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치료장비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팀은 7월 7일~8일까지 부산을 방문하여
해운대(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연구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올해 적외선분광기를 사용하여 인지재활치료와 상지운동 치료 시의
뇌활성을 실시간 분석하는 두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습니다.

논문 1. 2023_Frontiers in Neuroscience_
Alterations in learning-related cortical acti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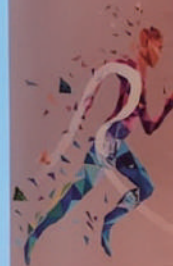
논문 2. 2023_Neurophotonics_HyperOptoNet



KSSR 2023

제10차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종합심포지엄
The 10th Korean Spring Symposium of Radiology
2023.6.22. 목 - 2023.6.23. 금
롯데호텔 부산

*Action for the Future
through Harmony*



제10차 대한영상의학회 춘계심포지엄 (06.22~23) 이준형 명예원장님(좌장), 백선미 병원장님(패널) 참석

이준형 명예원장님은 6/22(목)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흔치 않은 갑상선종례’라는
주제로 좌장을 맡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흔하지 않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영상 및 임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익숙해지면 진단도 즐겁고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ROGRAM 좌장: 이준형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정소령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강의시간	제목	연자
15:30~15:45	증례1: PTC with unusual image presentation	이경훈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15:45~16:00	증례2: Metastatic tumor of thyroid gland	이지예 (서울대학교병원)
16:00~16:15	증례3: Unusual thyroid malignancies-other than ATC, PDCA, lymphoma, metastasis	김해정 (삼성서울병원)
16:15~16:30	증례4: Anaplastic thyroid cancer	노미리비 (세브란스병원)
16:30~16:45	증례5: Lymphoproliferative disease of thyroid gland	안혜신 (중앙대학교병원)
16:45~17:00	증례6: Thyroid nodule-mimic non-thyroid lesion	이민경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다음날 6/23(금) 백선미 병원장님은
‘Young Radiologists Forum’에 패널로 참석하여
세부전공 소개와 최근 이슈에 대하여 듣고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며,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 영상학과 의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PROGRAM 좌장: 최지영 (서울대학교병원), 추기석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의시간	제목	연자
15:20~15:25	영상학과 전임의 세부 전공 지원 및 진로 선택 현황	채지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15:25~16:40	패널토의	패널: 권종원(울산 동천동강병원), 김원희(경북대학교병원), 백선미(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전수령(휴먼영상의학센터), 정혜두(서울88병원), 조연진 (서울대학교병원), 홍승백(부산대학교병원)
16:40~16:50	Q&A	





재활전문간호교육 (06.24)

간호팀은 핵심가치인 '전문성'을 근간으로 재활전문간호교육을 상,하반기에 각1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받는 간호팀, 더 성장하는 간호팀이 되기 위해 '재활전문간호교육'이 근무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이번 교육 1부에서는 가인지캠퍼스 특강(원장님 추천)_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핵심지표_‘감사하기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병원 핵심습관(1.감사하기, 2.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대화하기)을 실천하는데 매우 필요한 주제로 실제 생활에서도 매우 유익한 강의였으며 김연희원장님의 ‘인지재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원래 한시간 강의였으나 점심시간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더 요청해서 들었지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끝나도 더 듣고 싶을만큼 아쉬움이 남는 강의였습니다.

2부에서는 대부분 실무적인 강의로

1. 뇌질환상지UP protocol(배연정부팀장)
2. 업무표준화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교육TF팀)
3. QPS란? (QI-양희지간호사, 환자안전전담 김경애부팀장)
4. 감염관리팀 업무 및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지침(감염관리팀-박혜진부팀장)
5. 각생활동 소담소담라운딩 공유 (간호팀 각파트장)

마지막 순서로 다음준비를 위한 설문지 작성과 단체사진촬영으로 매우 알차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자안전 & 감염관리팀이
진행하는

2023년 '환자안전 & 감염관리의 날 행사' (06.13)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자안전 & 감염팀에서 먼저 4월에 전직원 대상으로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여 5월18일 시상식이 진행 되었고, 5월22일~6월16일까지 4,5층 치료실에 포스터 전 작품을 전시, 3층 대형스크린에는 시상된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6월13일은 "찾아가는 유퀴즈"로 1부(10시~12시) :직원, 2부(12~13시): 각 병동 참여자, 3부(14시~16시): 직원으로 3부로 나눠 OX퀴즈와 참가자 전원 선물 증정하여 참여자, 보호자, 전직원 모두의 큰 호응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안전한 병원 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참여자의 온전한 하루

일상홈 프로젝트 (06.18)



재활훈련을 기반으로 한 참여자의 온전한 하루를 보내며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퇴원 1주일을 앞두고(6/24 퇴원 완료) 퇴원 후 생활하게 될 거주공간에서 프로그램 진행하였고, 혼자 생활 가능한 활동 영역을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 코칭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공간을 확인하여 개선방법을 안내해드렸고, 추후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휠체어럭비) 체험 (06.09)

참여자의 외부활동 및 일상복귀 자신감 향상을 위해 장애인스포츠 휠체어럭비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운동 후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뒤 선수들과 분리하여 휠체어럭비 규정 및 기본 기술 연습하였습니다. 연습 후 선수들과 함께 릴레이 경주, 미니 게임 진행였고, 참여자, 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음날 피곤하긴 했지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재활코칭

프로그램

안전하고 효율적인 휠체어 사용방법 안내를 위해 휠체어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의 휠체어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였고, 내 몸에 맞는 개인 휠체어 구매를 독려했습니다.

상당 수준의 휠리를 수행하는 참여자를 동료코치로 활용하여 진행자를 돕고 팀리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휠체어스쿨 (06.13 / 0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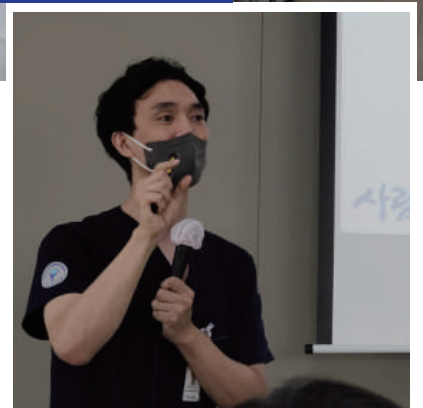


참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활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가족의 역할과 생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회복기 참여자, 보호자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되었으며, 평소 재활치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질문을 통해 막연함,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활치료의 이해와 재활과정에서 중요한 생활관리 재활지원센터 백영수 센터장 (06.10)

슬기로운
재활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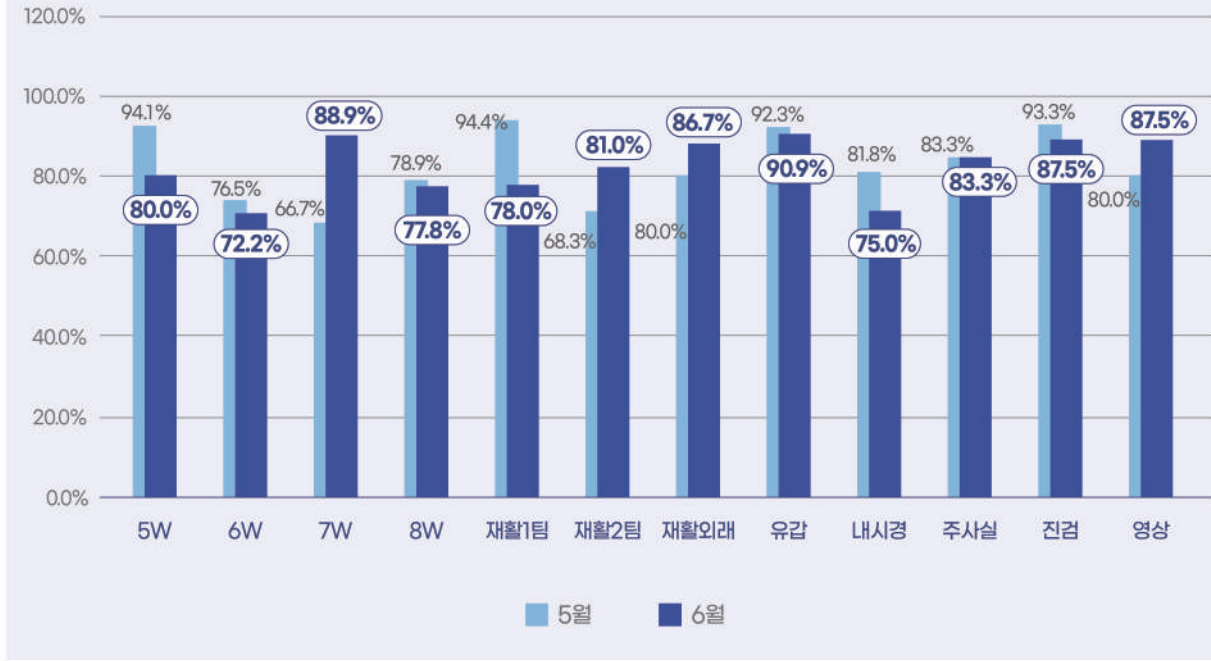


알기 쉬운 지역사회자원 안내 사회사업팀 이지혜 부팀장 (06.17)

참여자의 입원부터 퇴원준비, 퇴원이후까지 일상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상담, 프로그램, 국가보장제도와 지역사회자원연계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참여자와 강사 간 상호 질문과 답으로 활발히 이야기 나누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



‘유방갑상선센터’ 이달의 손위생 우수부서 (06.20)

6월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유방갑상선센터가 90.9%로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엔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손위생을 했는지 물어봐주시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감염병 예방의 기본기 올바른 손위생



간편하지만 효과 만점인
손소독제를 적극 활용합시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가인지스터디 1기 소감문

김경희 간호팀 부팀장(조직문화성장실 지원실장)



가인지스터디 1년이 되어갑니다.

벌써 오래전 2021년 9월쯤 간호팀 리더회의에서 라고 기억이 됩니다. 원장님으로부터 '가인지 캠퍼스'를 처음 들었던 순간이 너무도 신선해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치경영, 인재경영, 지식경영의 앞글자를 따서 '가인지'라는 말 이었는데, 처음에는 같이 들어보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당황하여 '가치'가 '같이'로 부각되던 시간이 떠오르며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만큼 생소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가스1기가 모이고 어느덧 3기까지 OKR party를 하고, 가스1기도 3학기 종강을 6월 15일 하였습니다.

첫째는 원장님의 제안이시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기에 우리들과 같이 나누어보자고 하시는지. 둘째는 궁금해져서 일단 가인지캠퍼스에 로그인을 하던 날부터~~~. 해나행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병원은 뭔가 다르다고 항상 느끼며 늘 감동했던 모든 것들이 10주년을 앞두고 10여 년간 달려온 해나행의 방향이 옳았다!!라는 확신과 함께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10년, 아름다운 동행!의 해답은 여기에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호기심으로 혼자서 강의를 계속 듣다보니 제법 많은 강의를 혼자 들으며 어렵게 느껴졌던 강의를 정리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되었습니다.(아마도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 훗날 2022년도 8월 조직문화성장실이 생길 때 조성실에 발탁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가인지 강의를 같이 나누려는 팀장님들 몇 분이 자발적으로 퇴근 후 가인지스터디(일명 가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역시 나행 리더다운 열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던가? 22년 7월 12일, 가스1기에 초대 되어 가인지를 나누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가인지스터디는 해나행의 '성장의 동력'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가 아니라 참여자의 회복과 병원의 성장에 내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깨닫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혀 생소했던 OKR/CFR/AAR, 용어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친숙해진 것은 큰 성과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대화하기', '나 표현법', 'TEB모델로 감사하기', 피드백을 위한 대화모델인 'SENSe로 대화하는 방법', '크라운 코멘트'등 CFR 스킬을 배우고 나눠보는 시간은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가스를 통해 단순히 강의가 이해된다가 아니고, 팀원 모두와 함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학기 긴 과정을 통해 어느새 팀에 적응하고, 코칭 해나가는 팀장님들을 보게 되었고, 가인지스터디는 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해나행의 미래가 밝다는 것과 해나행이 지속 성장하는 병원을 넘어 '사랑받는 병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스터디가 3학기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체력의 한계로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모습으로 만나기로 합니다.

1여년 3학기의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근무 후 바로 이어지는 긴 시간을 저녁식사 대신 간식으로 때우며 강의를 듣던 그 시간들, 박구봉 팀장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스터디 후 함께 동영상을 찍었던 일, OKR party를 파티로만 알았는데 이런 거구나~ 라고 처음 경험해본 파티,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시시껄껄 이야기 나누며 웃던 일, 이 모든 것이 벌써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는 1기 멤버 한분 한분들과 함께 이끌어준 박선미 실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가스'속에서 다른 차원의 리더들의 모습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재 발굴과 성장의 기회!! 가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지스터디 3기 소감문

권가영 총무팀 주무



1. 가인지스터디 참석 스토리

OKR을 처음 접하고 가인지 강의를 들으며 OKR이 어떤 것인지 두루뭉술하게 감은 왔으나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론적인 이해와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은 차이가 있었고, OKR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루틴한 업무에 도전적인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할까라는 딜레마에 놓였을 때 공통점이 많은 부서와 직책자들이 함께 강의를 들으며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가인지스터디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가인지스터디는 해나행의 '0000'이다.

가인지스터디는 해나행의 '성장 부스터'이다. 스터디를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다른 이의 깊이를 본받으며 생각의 폭과 역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험과 도전의 과정을 담고 있는 가스는 해나행 구성원의 성장을 도와주는 '성장 부스터'라고 생각합니다.

3. 가인지스터디에서 꼭 챙겨가야 하는 한 가지는(성과)?

'삼각형'

스터디에서 이것만큼은 꼭 챙겨가자! 라고 생각했던 것은 'OKR-CFR-AAR'에 대한 이해입니다. 3R은 가스 3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 도전주의/목표중심 조직으로 나아가는 해나행의 기반이 되는 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CFR은 팀에 신규직원이 있는 만큼 피드백의 중요성과 대화 방법에 대해 배우고 나의 대화방식과 피드백은 올바르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꼭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한 파트입니다.

4. 가인지스터디에서 얻었던 인사이트는(지식)?

가인지 스터디에서 13개의 강의를 들으며 OKR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었습니다. 팀에서 강의를 들으며 어렵פות이 알던 내용도 있었지만 AAP, 골든미팅, 격려와 자극이 있는 의사소통 방법 등 팀에 적용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고, 강의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워드를 나누고 상호 피드백을 하며 각자의 생각과 경험들을 나누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OKR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 가인지스터디를 통해서 얻어진 나의 성장은(성장)?

스터디에 참석하며 아이스브레이킹, 상호 피드백, 키워드 발견 및 생각나누기, 리마인드, 발표 등 새롭게 경험해 본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기에 떨리고 걱정도 많았지만, 미흡하더라도 고민하고 도전해 보며 '실수를 하더라도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얻은 것이 저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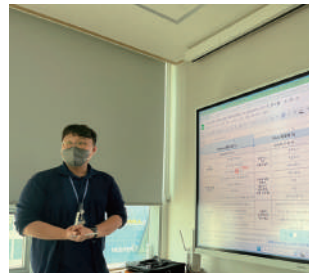
6. 가인지스터디에서 유익했던 것은?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유익했던 것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배움이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표현처럼 저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방법이며, 말의 무게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방법 또한 중요하며 스터디에서 배운 견해가 아닌 사실로 소통하기 / 격려를 위한 대화모델 / 비폭력, 교정적 피드백을 위한 대화모델 / I-Mes-sage 의사소통 방법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아이스브레이킹'입니다.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며 즐겁게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 하고 싶은 한마디

가스를 시작하기 전, 낯설고 생소한 영역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10주의 시간을 돌아보면 스터디를 통해 조금이나마 성장하고 함께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가스 3기 멤버들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스터디 기간 동안 잘 이끌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박선미 실장님 감사합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전달식 (06.27)

인사발령 공고에 따라 7/1일부로 승진이 발령되었고, 6/27일 임명장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재활치료2팀 강명승 부파트장, 김보연 부파트장, 7층 생활재활센터 정윤희 부파트장이 참석하여 임명장을 수여받았으며, 재활치료2팀 김종태 부팀장은 이날 개인적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다음주 수여받기로 하였습니다.

모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사업팀이 진행하는 일상재활센터 그룹치료 프로그램 '아보카도 과카몰리 만들기' (06.21)

일상재활센터 및 외래 참여자, 보호자와 함께 과일빙고 게임으로 어색한 공기를 편안하게 녹여준 다음 과카몰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주재료인 아보카도를 으깨고 토마토, 바질을 잘게 다져 넣어 레몬즙, 소금, 후추, 꿀을 기호에 맞게 넣고 마무리하면 끝. 참 쉽죠?

과정마다 참여자와 보호자의 요리 노하우에 감탄하기도 하고, 과카몰리를 활용한 레시피, 아보카도 먹는 방법 등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하며 소소하고도 알찬 시간 마무리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사진퍼즐액자 만들기' (06.22)

이번 달에 치료의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하는 사진을 사전제작 하여 퍼즐80피스 맞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가 함께 모여 뷁띠바크를 통해 평소 안쓰던 뇌를 깨우는 시간을 가지며 각자 퍼즐액자 사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담은, 인생의 한순간이 담긴 포토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스트레스 완화, 소근육을 자극하고 완성된 퍼즐을 서로 관심과 칭찬으로 마무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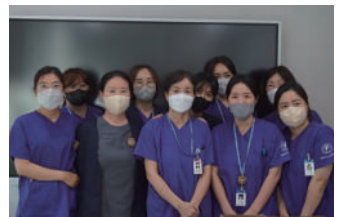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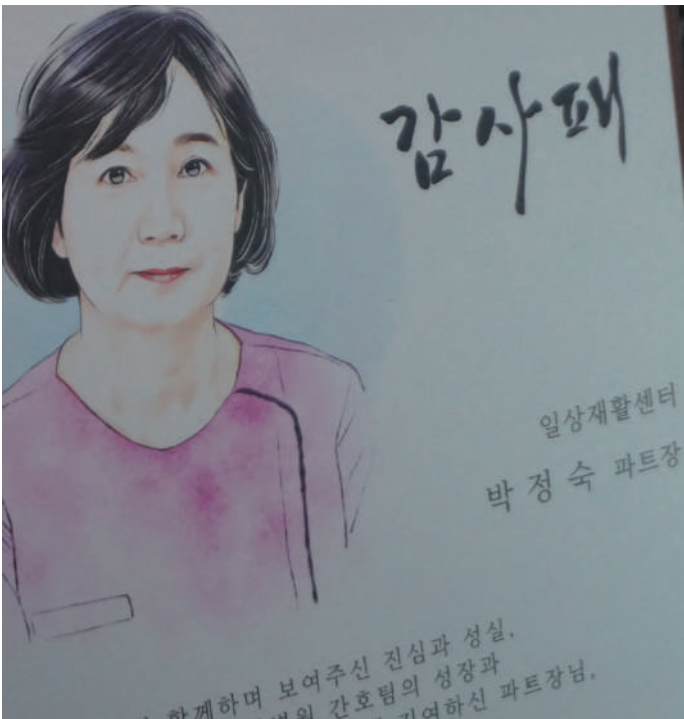


경북권역재활병원 본원 견학 (06.14)

정부와 경상북도 및 경산시가 주축이 되어 건립된 경북권역재활병원의 관리부장님, 간호과장님, 외래간호팀장님, 재활치료과장님, 건강검진센터 선생님 이렇게 다섯 분이 본원에 오셔서 성인 낮병동에 관한 운영시스템과 전체적인 재활시스템 그리고 외래 건강검진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일상재활센터 박정숙 간호사 퇴사 감사패 전달식 (06.09)





JAPAN
TRAVEL

찾아가는 일본 여행 컨설팅

15년 경력 일본가이드 본원 참여자와 함께 하는 **일본 여행계획** 세우기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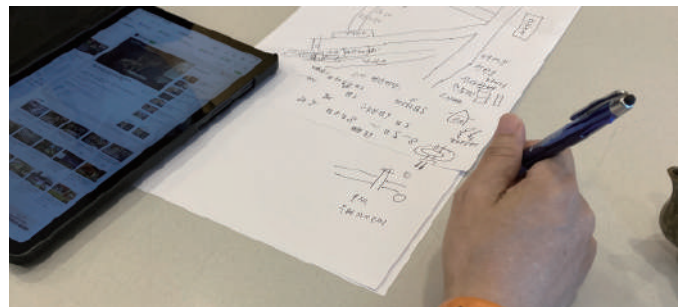
참여자가 본원에서 직업재활을 경험하여 자신감과 사회·직업 환경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에 관한 동기를 부여하여 퇴원 후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컨설팅 프로그램에 하나행이 함께하여 참여자의 사회복귀를 응원해주세요.

사회복귀준비, 사회사업팀이 함께 합니다. '참여자 김OO님의 찾아가는 일본 여행 컨설팅' (06.12 / 06.14)

김OO 참여자께서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가이드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향후 일본 가이드로 직업 복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찾아가는 일본 여행 컨설팅'을 통해 직업재활 훈련 기회를 경험하여 자신감과 사회·직업 환경 적응력을 높이고 퇴원 후 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2명의 하나행 직원께서 일본 후쿠오카 지역 컨설팅을 받으셨고 항공편에서 숙소, 여행지, 지역 맛집 추천, 교통편 등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며 만족해하셨습니다. 김OO 참여자 또한 과거의 일본가이드 경험을 살려 감사한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해하셨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김OO 참여자의 사회복귀를 응원합니다. 하나행이 '찾아가는 일본 여행 컨설팅'에 함께하여 참여자의 사회복귀를 응원해주세요.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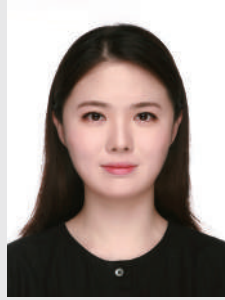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6월의 신규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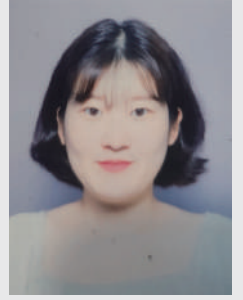
내과 남지현 진료과장



영상의학팀 이영삼 방사선사



간호팀(8W) 김지연 간호사



간호팀(5W) 서가현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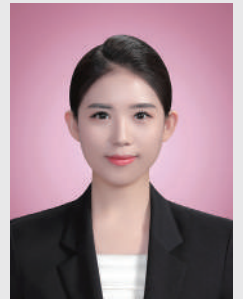
간호팀(8W) 박효진 간호사



간호팀(7W) 김보미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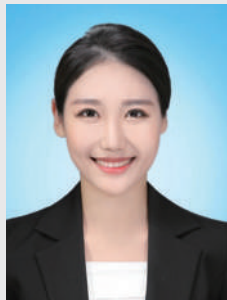
재활1팀 손수현 물리치료사



간호팀(7W) 김노향 간호사



재활1팀 배강림 물리치료사



유방갑상선센터 박소리 간호사



간호팀(5W) 이민영 간호사



재활2팀 허두원 작업치료사



재활2팀 홍은실 작업치료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일상속으로 사례집 발간식 (06.13)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이하 (사)나행동) '일상속으로 팀'의 사례집 '공감에서 공간까지'가 제작되어 소소한 발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거개선 사업은 2016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사)나행동의 시발점이자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에 본원의 소중한 발자취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뇌질한 참여자 사례 11건과 척수손상 참여자 사례 9건, 총 20건의 주거개선 사례를 이번 사례집에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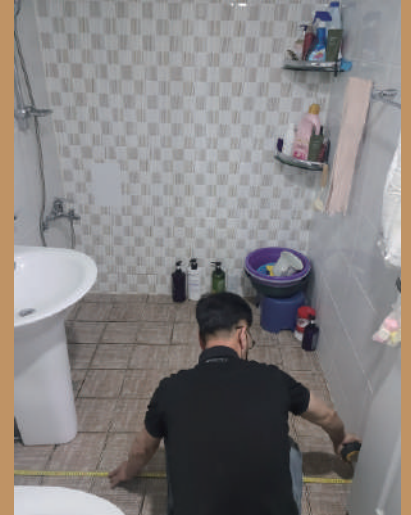
참여자의 준비된 퇴원을 위해 주거개선 가이드라인, 안내 자료가 될 것을 기대됩니다.

(사)나행동의 미션과 목표의 의미를 나누며 축하하고 이번 사례집 발간에 수고하셨던 TFT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의 말과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며 발간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상속으로 프로젝트 가정방문 (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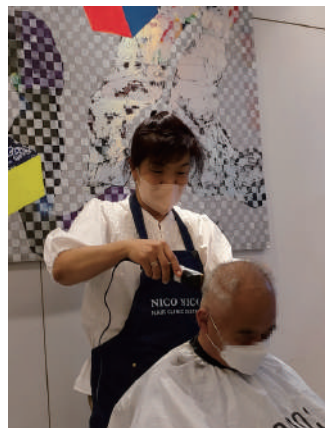
이번달에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과 함께 채OO님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을 점검하였습니다. 참여자는 현재 보호자의 도움 하에 보행 가능하며, 자택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침실, 화장실 입구, 화장실 내부 등 곳곳에 안전바 설치를 필요로 하였으며, 양변기 교체를 통해 독립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사물인터넷 기술(IOT: Internet of Things)을 이용하여 전등 스위치를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전 공사 완료 예정으로, 직원들과 함께 주변 환경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계시는 채OO님의 '준비된 퇴원'을 응원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06.20 / 06.23)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84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
1대, 2대
꿀꺽왕
수여
(06.14 / 06.28)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연하파트에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 TF는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지난 6/14일 제 1대 꿀꺽왕(이○○님)이 탄생하였고, 2주 뒤인 6/28일 제 2대 꿀꺽왕(김○○님)이 탄생하였습니다.

담당선생님들이 병실에 직접 찾아가 축하노래와 사진촬영 그리고 소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여자분께서도 담당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좋으면서도 시원섭섭하다는 소감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꿀꺽왕이 되신 분들께 축하의 한마디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재활센터 (낮병동)

출석왕
자립왕
수상
(06.09)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독서동아리 '다독다독' 창립5주년 (06.08)

1. 2023년 6월 8일 다독다독 창립 5주년 모임 (2018년 5월 창립)
2. 현재 회원 11명
3. 창립 5주년 모임 - 책 : 개인주의를 권하다
- 식사 : 이우철 누룽지 삼계탕
- 장소 : 투썸 플레이스 중동지점
4. 운영 : 월1회 1권 회원 추천으로 책 선정, 감상문 작성, 월1회 모임 참석은 자율
5. 다독다독 5주년 기념 '나에게 다독다독이(은)이란~'

[닉네임]

스칼렛 : 나에게 다독다독이란 "일상에 익숙한 나에게 새로운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는 멋진 이너서클"입니다.

포 비 : 다독다독을 통해 슬픔과, 감동을 느끼고 새로운 지식을 알 수 있었고, 지구 공동체에 살아가는 생명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차 누 :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

전우치 : 책을 봐야되는데 말하고 실천하고 있다가 매월 모임에서 이야기할 책 1권을 사게 되면 모임전에 읽고 가야지 생각만 1번 가져도 1페이지 이상은 무조건 읽게 됩니다.

책에 대해 이해력과 문해력이 떨어져도 회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다음달에는 이번달보다 조금 더 읽어야지하고 독서력을 키워주는 감사한 모임입니다.

토마시 :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한 권의 책으로 훨씬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곳,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

헤세드 : 나에게 다독다독은~ 내손에 꼭 쥐어준 지성&감성&영성 다양한컨텐츠를 다양한 시각으로 다독다독과 함께라서 나눔으로 행복한시간으로 차곡차곡 채워서 감사한시간입니다 ~



독서취향

점들을 많이 찍으면 그 점들 사이를 잇는 선이 생겨나고
면이 완성된다.

독서가 취미고 글쓰기가 공부라서 즐거운 겁니다.
학교 공부는 지겹지만, 나이 들어 혼자 하는 공부는 부담이 없어요.
시험이 없고 경쟁이 없거든요.
단지 어제보다 하나 더 알고 깨우치고 싶은 내가 있을 뿐이에요.
_김민식<매일 아침 써봤니?>(위즈덤하우스)

가끔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읽어서 뭐하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책건문(책에서 건진 문장)을 좋아하는 내가 책에서 건질 문장이 없을 때가 그렇다. 게다가 세계사나 한국사 같은 책을 읽을 때는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든다. 재미는 있는데, 읽을 땐 푹푹해지는 거 같은데, 책장을 덮고 나면 그 마법이 사라진다. 건진 문장도 없다. 며칠 지나면 기억이 전혀 없다. 분명 재미는 있었는데.

모처럼 최근 몇 년간 읽은 책 리스트를 살펴봤다. 다행히 읽은 책 제목은 엑셀에 보기 좋게 저장해 놓은 터라 쉽지 않게 검색이 가능하다. 오른손의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 할수록 내 취향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지난 몇 년간 소설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이 자기계발 도서다. 물론 에세이 형식도 많지만 그 역시도 자기계발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책들이 몇 권 있다. 세계사 관련한 책이 4권, 한국사 3권, 미술사가 2권 클래식 1권이다. 이거 무슨 조합인가 싶다. 이런 흐름을 보면 그 당시 내 관심사를 알 수 있다. 세계사에서 시작한 궁금증은 클래식으로 귀결되었으며, 4권에서 3,2,1 권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관심이 적어지기보다 책에서 건질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작은 강박관념에서 일부러 관심을 끊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확실히 재미는 있었는데.

책 선택의 기준은 뭘까 궁금해졌다. 흥미, 자기계발, 인문학적 사고, 지식 등 어떠한 선택으로 골라야 잘 골랐다는 것일까. 정답이 없다는 것은 나도 안다. 어떤 저자는 선택의 넓이를 강조하고, 어떤 이는 분야의 깊이를 강조하니, 선택의 기준 또한 지금껏 개인의 취향일 것이다. 책 편식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듯이.

지난 주 도서관에 가서 5권의 책을 빌렸다. 그 중 신간코너에서 따끈따끈한 새 책 「두선생의 지도로 읽은 세계사」가 포함되어 있다. 딱히 세계사에 대한 알아야 할 이유도, 숙제도, 강요도 없는데 자꾸만 세계사 쪽으로 외도를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세계사에 대해 너무 무식해서 일까? 너무 몰라서 어떻게든 지식을 습득해보려는 이유일까? 아니면 청소년기에 겪었던 창피함에 대한 결핍의 존재일까?

책을 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결핍이나 열등감이나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다.
_이상민<책쓰기의 정석>(라오네)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가? 내가 중학교 시절이다. 몇 학년 때문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도 사회, 국사, 세계사 이런 과목은 내 관심 밖 영역이었다. 수학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했던 나였기에 암기과목은 정말 싫었다. 학기 중간고사였던 거 같다. 국사인지

세계사인지 기억이 흐리지만 지금 더듬어보니 세계사로 추측된다. 중간고사 시험은 20문제였고 한 문제당 5점이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그날 나는 20문제 중에 4문제 맞췄다. 20점이다. 정확히 5분의 1이다.

대책이 필요했다. 3살 터울 고등학생 형에게 자문을 구했다. 형은 나를 엘리트였다. 중학교 내내 반에서 1등 전교에서도 1등에서 5등을 달렸고, 고등학교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였다. 나랑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너무나도 달랐다. 학원도 한 번 안다닌 듯한데, 개천에서 용날 수 있었던 시기라 가능했겠지 싶다. 아무튼 형이 말하는 비법은 교과서라고 말해줬다. 역시 범생이다운 말이다. 그거 말고 빠르게 외워서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달달했다. 그는 내게 시험 하루 전날 교과서의 굵은 글씨만이라도 달달 외워서 가라고 했다. 머털도사가 누덕도사에게 비법을 알아낸 것 마냥 나는 기말고사에서 부릴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외웠다. 기말고사 하루 전날 세계사 교과서의 굵은 단어를 달달 외웠다. 그리고 다음날 세계사 시험지를 받았다. 당황스럽다. 한때 개콘서트 유행어처럼 정말 '당황스럽다.' 아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어떻게 잘 풀리겠지 싶어서 열심히는 풀었다. 열심히. 결과는 20문제 중 2문제 맞췄다. 10점이다. 중간고사보다 더 내려갔고, 아마 처음으로 수우미양가 중에서 '가'라는 것을 받아본 거 같다. 가? 가당찮다.

이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히지 않는다. 세계사에 대한 결핍이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30년이 지나서 세계사에 대한 관심은 「곰브리치 세계사」로부터 출발해서 4권의 책을 연이어 읽은 후에야 약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곰브리치 세계사는 소장가치도 충분하고, 아이들에게도 언젠가 읽히고 싶어서 일반 책이랑 예일대 특별판 모두 구매하였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잊어버리는 건 여전하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도전하면 원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어떻게든 먼저 '점'을 찍으라는 것이다. 점들을 많이 찍으면 그 점들 사이를 잇는 선이 생겨나고 면이 완성된다. 아직 점 하나 찍지 못했으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느라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마라.
_팀페리스<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토네이도)

나는 오늘도 출근 후 점하나를 찍었다. 업무 전 습관처럼 책을 펼쳤고, 아직 따끈한 「두선생의 지도로 읽은 세계사」 초반부인 중동지리에 대해 읽었다. 재밌다. 지금 내가 중동지리를 외운다고 변하는 건 전혀 없는데 말이다. 그래도 재밌다. 이 책에서 나는 한 줄의 문장도 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다. 그동안 세계사 책에서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중동의 지리적 위치를 알아가는 것도 흥미롭고,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나 몰랐던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도 웃기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점들이 언젠가 선이 되고 면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점하나를 찍었다.

우리 모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브런치에 글을 쓰는 사람도, 글을 읽는 사람도 모두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 이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책을 읽고, 자연스레 책을 쓰는 삶으로 연결지어가고 있다. 나도, 당신도.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3년 06월 30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